

“제2의 이종범도 좋지만, 최고 선수 김도영이고싶어요”

KIA 1차 지명 김도영 인터뷰

“이종범의 플레이를 하면서 제 1의 김도영이 되겠습니다.”

어느 시즌보다 치열했던 경쟁을 뚫고 KIA 타이거즈의 1차 지명 선수가 된 동성고 김도영이 ‘이종범의 재림’을 꿈꾼다.

김도영은 공수·주루 모두 갖춘 내야수로 평가 받는다. 정확한 타격에 빠른 발로 그라운드를 휘젓는 모습에 ‘리틀 이종범’이라는 애칭도 얻었다.

김도영은 “프로 지명날 생각보다는 잘 됐다. 1년 동안 열심히 했고, 운명에 맡기기로 했다. 처음 소식을 듣고 얼떨떨했다. 실감이 안 나서 기분은 좋은데 좋다고 표현도 못 했다. 유니폼을 입었을 때 KIA 선수라는 게 실감났다”고 웃었다.

엄마의 권유로 대성초 4학년 때 야구를 시작한 김도영은 ‘빠른 발’로 이내 그라운드를 접수했다. 그는 “엄마가 놀지만 말고 야구를 해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재능도 인정받고 재미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발은 빨랐다”고 말했다.

김도영은 최근 끝난 협회장에서 2루 견제에 걸리고도 3루 도루를 만드는 장면을 연출했다.

그는 “감독님께서 ‘사인 안 나도 땀가 해야 할 것 같으면 뛰라’고 말씀하셨다. 투수가 앞을 보면 던지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앞을 보면 뛰어다녔는데 견제였다. ‘에라 모르겠다’ 생각하고 전력으로 뛰었는데 살았다”고 웃었다.

김도영은 이 대회에서 좋은 수비도 보여주면서 확실한 어필 무대를 가졌다.

김도영은 “작년보다는 수비도 많이 발전했고, 그런 걸 방송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며 “요즘 수비하는 게 재미있다. 프로 가면 평고도 많이 받아보고 싶고 빨리 수비 훈련해보고 싶

내년 개막전 1번타자가 목표
챔피언쉽 긴장 즐기고 싶어
올해 전국체전 우승 위해 최선을

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지난 2월 연세대의와 연습경기에서 3개의 홈런 포도 날렸다. 특히 밀어서도 홈런을 만들며 주목을 받았다. 김도영은 “연습경기니까 정확히만 쳐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부담 없이 마음 비우고 쳤는데 홈런이 됐다”고 말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김도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년만 미처보자’라고 적었다.

김도영은 “훈련할 때는 열심히 하고 놀 때는 놀았다(웃음). 아마추어 마지막이니까 미처서 뛰어보지마 시기에 임했다”며 “부담은 있었지만 마음 비우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김도영의 올 시즌 첫 번째 목표는 ‘우승’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1차 지명’이었다.

아쉽게 협회장기 준우승에 머물렀던 김도영은 1차 목표를 이룬 만큼 전국체전 우승을 위해 남은 시즌에도 부지런히 달릴 생각이다.

최근에는 다음 목표도 설정했다. ‘개막전 1번 타자’가 새로운 목표다.

김도영은 “최근에 정한 건데 어느 구단을 가더라도 개막전 1번 타자로 나가보고자 생각했다”며 “캠부터 보여주면서 믿음을 드려야 한다. 열심히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에서의 순간을 꿈꾸고 있는 그가 가장 유심히 보는 야구 선수는 LG 오지환이다. 팀에 합류하

면 박찬호를 유심히 지켜볼 생각이다.

김도영은 “(오지환은) 모든 면에서 잘하는 것 같다. 힘도 좋고 수비하는 것을 많이 봤다”며 “또 박찬호 선배님 글러브에서 공 빼는 게 부럽다. 정말 빨리 빼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샌디에고), 하비에르 바이스(뉴욕 메츠)의 플레이를 좋아한다. 김도영은 “타티스는 몸에 탄력이 좋아서 치는 것과 점프도 높게 한다. 어깨도 강해서 많이 본다. 바이스는 야구 센스가 좋다. 주루 플레이와 태그 피하는 게 유심히 본다”고 설명했다.

김도영의 무대가 될 챔피언스필드는 익숙한 곳이다. 불보이로도 경기장을 찾곤 했다.

김도영은 “어릴 때 불보이로 경기장을 밟았는데 챔피언스필드는 낯설지 않고 뭔가 내 구장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팬들의 함성 속에 야구를 하면 영광스럽고 긴장도 될 것 같다. 긴장을 즐겨야 할 것 같다. 그동안 큰 무대에서 약했던 것 같은데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즐기면 잘 됐다. 즐기면서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프로의 빠른 공에 안 밀리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컨택트는 좋은 편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고 힘이 가장 필요하니까 힘을 먼저 기르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자신 이름 앞에 붙은 ‘리틀 이종범’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활약을 하면서 ‘김도영’ 자신이 되겠다는 각오다.

김도영은 “이종범 선수의 플레이를 하고 싶다. 제 2의 이종범이라는 애칭에 맞게 열심히 해서 플레이를 따라가고 싶다. 이종범 선수처럼 KIA를 책임져보겠다”며 “제 2의 이종범도 좋는데 제 1의 김도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1차 지명을 받은 김도영이 팬들을 위해 손타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KIA 윤중현 “선발 기회 잡았는데 비가 야속해”



KIA 타이거즈의 윤중현(사진)이 열심히 하늘을 올려보게 됐다.

지난 10일 후반기 일정을 시작한 KBO의 최대 변수는 ‘날씨’다. 가을 장마에 태풍까지 찾아오면서 KIA도 벌써 4경기를 비로 소화하지 못했다.

뜬금없이 날씨가 특히 애가 타는 선수가 있다. 선발 등판을 준비했던 사이드업 윤중현이다.

28일 SSG 원정경기 등판 예고
“열심히 하늘 올려보고 있어요”

KIA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연전을 치를 예정이었다.

브룩스 이탈, 김우신의 부상으로 선발진 공백이 생긴 만큼 윌리엄스 감독은 8연전 고민을 했다. 팀의 위기는 윤중현에게는 기회가 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8연전 기간 22일 임기영을 시작

으로 23일 김현수를 투입하고 24일 대체 선발 자리에 윤중현을 넣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태풍 오마이스 영향으로 23일 경기를 하지 못하면서 윤중현의 선발 등판이 밀렸다.

하루 더 쉬고 김현수가 24일 선발로 나왔고, 윤중현은 이날 일단 불펜으로 이동했다. 날씨 변수가 없으면 28일 SSG와의 원정경기에서 윤중현이 선발 등판을 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주에도 계속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윤중현의 선발 등판 여부는 하늘에 맡겨야 한다.



전에서는 처음 선발로 출격해 3이닝 무실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KIA 입장에서 더 이상 비가 반갑지 않다.

지난해 군 복무를 마치고 올 시즌 팀에 합류한 윤중현은 지난 5월 9일 두산전을 통해서 프로 데뷔전을 치르는 등 올 시즌 19경기에 나왔다.

6월 24일 KT전에서는 처음 선발로 출격해 3이닝 무실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KIA 입장에서 더 이상 비가 반갑지 않다.

올 시즌 비,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23경기가 취소됐고 이 중 15경기를 아직 소화하지 못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지금 당장은 우천취소가 있어도 괜찮지만 나중에 부담이 될 것 같다. 이제 비가 와서 로테이션이 자동으로 조정돼서 좋지만 앞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재경기가 너무 많아 몇 경기를 해야 하는지도 까먹었다(웃음). 내일부터는 경기가 비로 중단될 경우 서스펜디드와 더블헤더도 잡히기 때문에 걱정이다”고 말했다.

KBO는 경기 일정 조화를 위해 후반기 연장전을 없앴고, 일정을 앞당겨 25일부터는 더블헤더도 시행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4일 오전 일본 효고(兵庫)현 니시노미야(西宮)시 소재 한신고시엔(阪神甲子園)구장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16강전에서 한국계 학교인 교토국제고 선수들이 니소가쿠사(二松學舎)대학 부속고등학교를 6대 4로 누르고 승리한 후 도열해 있다.

교토국제고, 고시엔서 한국계 첫 8강 ‘패저’

일본 내 3603개 고교 출전
경기장에선 한국어 교가 연주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京都)국제고등학교가 ‘여름 고시엔’ (甲子園)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8강에 진출하는 깜짝 성과를 올렸다.

한국계 학교로는 물론 외국계 학교가 선발고교 야구대회(일명 ‘봄 고시엔’) 혹은 여름 고시엔에서 8강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오전 일본 효고(兵庫)현 니시노미야(西宮)시 소재 한신고시엔(阪神甲子園)구장에서 제 103회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16강전에서 교토국제고는 니소가쿠사(二松學舎)대학부속고등학교를 6-4로 눌렀다. 4-4 동점으로 9회를 마친 후 연장 대결을 펼친 10회에서 추가 2점을 뽑아 8강 진출을 확정했다. 8강 경기는 날씨 변수가 없다면 26일 오전 8시 열릴 전망이다.

이번 여름 고시엔에는 일본 내 3603개 고교가 도전했다. 일본 고교 야구 연맹이 1999년에 가입해 상대적 후발 주자인 교토국제고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위 8위에 든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로 볼 수 있다. 박경수 교토국제고 교장은 “우리 학교가 고시엔에 진출한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오늘 승리로서 명실상부한 교토 일인자며 일본 1위까지 기대할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한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교토국제고가 이날 승리함에 따라 경기장에서는 “동해 바다 건너서 아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이 학교의 한국어 교가가 연주됐다. 이 장면은 공영방송 NHK를 통해 일본 각지에 중계됐다. 교토국제고

는 19일 열린 마에바시이쿠에이고(前橋育英高)를 1-0으로 이겼다. 교토국제고가 올해 3월 봄 고시엔에 처음 출전했을 때도 이 학교의 한국어 교가가 연주됐다. 이는 일본 내 외국계 학교가 봄 고시엔에 출전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교토국제고는 당시 첫 경기에서는 승리했으나 16강전에서 도카이다이스가오(東海大菅生)고에 4-5로 역전패당해 8강 진출을 이루지 못했다.

1947년 재일 교포 교육 시설인 교토조선중학교가 개교한 것이 교토국제고를 운영하는 교토국제학원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2등만 8번’ 토니 피나우 PGA PO 1차전서 우승



‘준우승 징크스’에 시달리던 토니 피나우(미국·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플레이오프(PO) 1차전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설움을 날렸다. 피나우는 2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저지시티의 리버티 내셔널 골프 클럽(파71·7410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플레이오프 첫 대회 노던 트러스트(총상금 950만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5개, 보기 1개를 묶어 6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20언더파 264타를 기록한 피나우는 캐머런 스미스(호주)와 공동 선두를 이룬 연장전으로 갔다. 18번 홀(파4)에서 열린 연장전에서 피나우는 침착하게 파에 성공하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피나우가 PGA 투어 정상에 오른 것은 2016년 3월 푸에르토리코 오픈에서 첫 승을 거둔 이후 5년 5개월 만이다. 그 사이 피나우는 총 8번의 준우승을 거뒀다. 올해 1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과 2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도 준우승으로 우승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톱10에 39번이나 들었지만, 번번이 우승을 놓쳤다. 연장전에서도 3차례 패했다. 피나우는 첫 승 이후 1975년 동안 143개 대회를 치르면서 2승을 거뒀다.

/연합뉴스